

3/ ‘전적’(戰跡)이라는 기억의 장

가고시마 생협의 ‘평화활동’을 중심으로 * **

이영진



가고시마 지란 평화공원 내 특공공사의 상(2012년 5월 필자 촬영)

이영진(李榮眞)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일본 지역을 전공했으며, 현재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 인문한국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공저로 『세월호 이후의 사회과학』(그린비, 2016) 외에 「전후 일본과 애도의 정치: 전쟁체험의 의의와 그 한계」(2013), 「과국과 분노: 3.11 이후 일본 사회의 탈원전 집회를 중심으로」(2014), 「근대성과 유령: 근현대 동아시아의 죽음의 정치를 넘어서기」(2016)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최근에는 미나마타병, 근대 일본 사회의 인민과 이미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08-362-B00006).

** 본 연구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2009년 한 해 동안 수행했던 가고시마 장기 필드워크 중, 평화그룹 활동에 참가하면서 얻은 여러 데이터와 이후 매년 이루어진 단기 방문조사, 특히 2016년 가을에 수행한 추가조사(10월 22일~10월 27일)의 결과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1. 들어가며

전후 일본사회에서 오키나와, 히로시마, 나가사키라는 지역의 공통점은 지난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대표적인 ‘기억의 장’이라는 것이다. ‘오키나와전투’, 원자폭탄에 의한 ‘피폭’이라는 비극적인 경험을 겪은 이들 지역은 일본의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지의 주요한 답사 코스이자, 매년 많은 순례객의 참배가 줄을 잇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레논(J. Lennon)과 폴리(M. Foley)가 지적했던 것처럼 후기 근대 사회의 특징적인 문화 소비현상인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한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¹

이들 지역과 비교해보면 가고시마는 비교적 최근인 199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지난 전쟁을 상기하는 대표적인 답사지, 혹은 관광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계기는 가고시마 현지를 로케로 한 <호타루>(ホタル, 2001)나 <나는 그대를 위해 죽으러 갑니다>(2007)와 같은 특공 관련 영화가 붐을 이루면서부터였다. ‘한류’(韓流) 드라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겨울연가> 붐 이후 드라마의 촬영지 관광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일본 관광객들의 수요에 맞춰 만들어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영화 로케지를 대상으로 한 관광 상품은 일본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차를 재배하는 작은 농촌마을이던 지란(知覽)은 일찍부터 마을이 중심이 되어 정비해온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발빠르게 그 수요에 응했고,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특공의 성지(聖地)’로서의 지역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²

과거의 작전 지휘소나 특공대원이 식사를 하던 여관 등 영화의 무대가

1 레논과 폴리는 그들의 책에서 특히 죽음, 재해, 잔학행위가 발생했던 장소와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시설들이 관광지화되고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 순례하는 일련의 현상을 ‘다크 투어리즘’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어, 아우슈비츠로 대표되는 독일과 폴란드에 산재한 2차 대전기의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과 관련된 집단수용소들, ‘킬링필드’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의 예전 정치범 수용소의 기념관화는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의 사례다. John Lennon and Malcolm Foley, *Dark Tourism: The Attraction of Death and Disaster*, Cengage Learning Business Press, 2000 참조.

2 이영진, 「산화(散華)와 난사(難死): 전후 일본의 특공의 기억과 재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45(3), 2012.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평화그룹’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지역의 전쟁 체험에 기반한 아마추어 평화운동의 가능성과 그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기억의 장으로서의 ‘전적’(戰跡)

프랑스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P. Nora)가 주도한 ‘기억의 장’(les lieux de mémoire) 프로젝트는 그 저작의 일부가 한국어로 번역된 바 있고, 또 여러 차례 논의되었기 때문에,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주목할 것은 노라도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프랑스인의 기억을 매개로 옛 프랑스를 새로이 성찰하기” 위한, 즉 “프랑스라는 외연을 가진 기억의 국민경제”⁴를 창조하고자 한 프로젝트가 왜 전 유럽으로 수출되고,⁵ 나아가 유럽과는 다른 근대 국민국가 건설을 거쳤던 동아시아의 기억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기억의 장이 프랑스적 특수성으로 출발했지만 하나의 보편성을 담아낼 수 있는 모듈(module)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변이형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틀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기억의 장’이라는 개념은 ‘기억’과 ‘장’이라는 두 개념의 조합이다. 거대한 기억의 장 프로젝트의 권두 논문(『기억과 역사 사이에서』)에서 오늘날 기억의 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세계가 그 기억을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역설로부터 출발한 노라는, 기억과 역사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즉 ‘기억’이란 “삶이자, 언제나 살아 있는 집단에 의해 생겨나고 그런 이유로 영원히 진화되어가며, 기억력과 전망증의 변증법에 노출되어 있고, 의식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왜곡되며, 활용되거나 조작되기 쉬운” 것이라면, ‘역사’란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한 미완성의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재구성(reconstruction)”이다.⁶ 또한 ‘장’(lieux)이

4 정지영·이타가키 류타·이와사키 미노루 편, 『동아시아 기억의 장』, 역사비평사, 2015, 22쪽.

5 이용재, 「‘기억의 장소’의 국제적 확산과 변용」, 『프랑스사연구』 제25호, 2011.

6 피에르 노라, 김인중·유희수 옮김,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기억의 장소들에 관한 문제제기』, 『기억의

란 물리 공간적 의미에서 3차원적 장소가 아닌, 기억술론(記憶術論)의 전통 속에서 일관적으로 계승되어온 개념으로 ‘loci’(장소들: 라틴어 장소의 복수형)이자, ‘topoi’(장소들: 그리스어, 장소의 복수형)이다. 다시 말하면 ‘기억의 장’이란 ‘집합적’ 또는 ‘사회적 공동체’에서 공유된 기억의 준거점으로, ‘함께 기억하는 것’(com-memoration)이 ‘기념’, ‘축하’를 의미하고, ‘공통의 장소’(commom-place)가 ‘상투어’, ‘평범한 것’, ‘흔한 것’을 의미하듯, 그러한 포괄적 의미의 ‘장소’를 지칭한다.⁷

이러한 기억의 장의 대표적인 예가 프랑스의 라마르세예즈와 같은 국가(國歌)로부터 삼색기, 박물관, 기록보관소, 묘지, 축제, 세대, 기념일, 전물자 추도 기념관 등의 ‘장’이다. 여기서 ‘장’(lieux)은 이곳, 저곳을 가리키는 물질적 의미의 장소만은 아니며, 장이 갖는 세 가지 속성, 즉 물질적·상징적·기능적 측면이 서로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기억의 장이 된다. 예를 들어 세대(generation)는 인구학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본다면 물질적이고, 그것이 추억의 결정화와 추억의 전달 작용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기능적이며, 또 하나의 사건이나 소수의 사람들이 겪은 하나의 체험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을 특징 짓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상징적이라는 점에서 기억의 장이 된다.⁸

다만 “우리가 더는 거기에 거하지 않은 기억의 살아남은 장소들, 반(半)공식적·제도적이면서 반 감정적·감상적인 기억의 장소들, 더는 전투적인 열의나 열정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무언가 상징적인 삶이 아직도 고동치는, 만장일치의 감정이 없는 만장일치의 장소들”⁹이라는 노래의 언명에서 드러나듯, 노래의 프로젝트에서 기억의 장은 이제 사회 내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장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 그리고 빠른 속도로 근대화, 식민, 내전을 겪으면서 국민국가를 건설해온, 동아시아

장소 1』, 나남, 2010, 34쪽.

7 정지영·이타카기 류타·이와사키 미노루 편, 『동아시아 기억의 장』, 20~21쪽.

8 Pierre Nora, “Generation,” in Pierre Nora, ed., *Realms of Memory: Rethinking the French Past*, translated by Arthur Goldhammer,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9 피에르 노라, 김인중·유희수 옮김,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기억의 장소들에 관한 문제제기」, 43쪽.

아의 여러 나라에서 기억의 장은 프랑스의 그것과 같이 그렇게 안정되고 고정된 장소일 수 없다. 동아시아 기억의 장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연구자들이 지적하듯, 동아시아의 역사적 현실은 국민사적 기억의 토폴로지(topology)를 구축하는 것을 간단히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역사는 중화 제국, 일본의 제국주의와 전쟁, 냉전, 한국전쟁, 그러한 역사가 만들어낸 디아스포라의 존재, 그리고 오늘날의 글로벌화 등 ‘일본’이나 ‘한국’이라는 단위를 국민사적으로 나누기에는 너무나 얽혀 있기 때문이다.¹⁰ 나아가 기억의 장 프로젝트에는 국민주의적 기억을 넘어서는 식민지 문제 등과 같은 다양한 불협화음의 요소들, 다시 말하면 ‘공동의 기억’에 선행하는 ‘공동의 망각’이라는 문제가 처음부터 누락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해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기억의 장’이란 원래부터 무수히 존재하는 여러 기억을 누락시키고 ‘기억의 구멍’(trou de memoire) 속으로 빠트리면서, 그 위에 ‘균질적이며 공허한’ 상상의 연속적 공간을 형성했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공간인 것이다.¹¹

이상의 논의는 오늘날 가고시마에 남아 있는 ‘전적’들을 기억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함에 있어서도 많은 참조점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전후 일본사회에서 합의된 것처럼 보이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평화공원은 물론이려니와 가고시마의 특공 전적들 역시 일본사회 내의 다양한 기억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누락된 채 만들어진 장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합적 기억을 단일한 전체가 아니라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액티브한 과거”로 파악하면서 “기억 실천”(memory practice)이라는 측면에서 기억의 장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올릭(J.K. Olick)의 연구¹²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는 역사를 매끈하며 필연적인 진화 발전의 흐름이 아닌 그 단절과 뒤엉킴에 주목하면서 동시에 그 장에 기입되는 권력의 효과에 천착하는 계보학적 작업들을 통

10 정지영·이타가키 류타·이와사키 미노루 편, 『동아시아 기억의 장』, 31~32쪽.

11 정지영·이타가키 류타·이와사키 미노루 편, 『동아시아 기억의 장』, 25쪽.

12 Jeffrey K. Olick, “Genre Memories and Memory Genres: A Dialogical Analysis of May 8, 1945 Commemoration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3), 1999.

가고시마 전쟁공습전’(母子の鹿兒島戦争空襲展)이라는 기획 아래 가고시마의 전쟁과 공습을 말해주는 유물과 사진 등을 처음 전시했다. 6월 17일은 1945년 패전 무렵 가고시마에서 자행된 연합군 공습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소위 ‘가고시마 대공습’(사망 2,316명, 부상 3,500명)이 일어난 상징적인 날로, 매년 가고시마는 이 날을 기념하며 평화집회나 강연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왔다. 그 하나로 이루어진 행사였던 이 전시회가 당시 지역사회에서 호평을 받아, 1987년부터는 매년 6월 17일 전시회를 겸한 평화집회(‘6·17 평화집회’)가 상례화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필자가 평화그룹 활동에 참가하게 된 것 역시, 2009년 6월의 ‘평화집회’에서의 만남이 그 계기가 되었다.¹⁵

평화그룹은 지난 세기 가고시마의 전쟁 경험의 기록과 계승을 통해 평화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취지로 가고시마에 거주하는 일반시민(생협 회원)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단체(회원 10명)로, 일반시민의 ‘생활 감각’이라는 렌즈를 통해 지난 전쟁을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가고시마 생협 내에는 ‘평화그룹’ 외에도 비슷한 목적으로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룹들이 있다. 이 그룹들 역시 정기적으로 교류회를 열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규모로 보나 역사로 보나 ‘평화그룹’이 가장 대표적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그룹의 회원들은 예전부터 개별적으로 생협 내외의 여러 평화활동에 종사해오다 전후 50주년이 되는 해인 1995년, 가고시마 현 내의 전적 조사라는 공동의 목적하에 결성되었다. 사무국을 담당하는 생협 직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50~70대의 여성(주부)들로, 이러한 회원 구성은 조사활동의 방향성이나 그 내용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측에 기초하면서도 현 내외의 일반시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아기자기하게 제작된 전적 관련 지도나 투어 코스에 대한 섬세한 조언 등은 전문적인 역사학자들이 집필한 ‘딱딱한’ 전적 가이드북에 비해 일반인들의 눈높이

15 당시 연구자는 집회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던 평화그룹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눈 것을 계기로, 2009년 7월 평화그룹 정례모임부터 참가, 매달 서너 차례의 각종 필드 조사활동 및 정례모임에 참석했다.

에 맞춰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이들 가운데 전문적인 역사 지식을 가졌거나, 편집이나 사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 회원들은 모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인기에 달해, 소위 “할 일을 다 한” 주부들로, 평화그룹에서의 활동은 그들에게 3차 혹은 4차 사회화 과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평화그룹 활동의 가장 큰 성과로 회원들이 자부하는 것은 역시 가고시마 현 내의 전적조사와 그 결과물로 발간된 일련의 자료집이다. 일본 유일의 ‘지상전’이 전개된 오키나와에서는 전후 초기부터 전적을 둘러싼 활발한 조사와 투어가 있어왔지만, 일본 본토의 경우 전적에 대한 관심은 희박한 편이었다. 물론 이는 본격적인 연합군의 일본 본토 진공작전이 전개되기 직전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면서 일본 본토는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전후 50주년의 해인 1995년을 기념하여 일본 각지에서 쏟아져나온 전쟁체험문집을 보더라도, 지상전이 일어난 오키나와의 주민이나 해외의 전장에 군인/군속으로 나간 소수의 전장 체험을 제외하고¹⁶ 대다수 일본인의 전쟁 체험은 전쟁 말기의 공습과 각종 부역노동에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내 고장도 전쟁터였다’라는 실감은 아무래도 희박한 편이다.

하지만 전후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일본사회 내에서도 지난 전쟁에 대한 관심이 증언에서 전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세월이 흐르면서 전쟁의 체험자들이 고령에 접어들고, 지난 전쟁이 하나의 역사로서 기념비화되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특히, 가고시마의 경우는 오키나와 전투의 일환으로 도처에 특공기지가 건설되었고, 오

16 전쟁체험문집은 그 이전에도 개인의 자비 출판이나 30주년, 40주년 등의 주기에 맞춰 지역 단위로 발간되어왔지만, 특히 전후 50년이던 1995년에는 해당 시정촌을 중심으로 대규모 편찬사업이 이루어졌다. 가고시마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가고시마 생협 역시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95년에 『어찌 잊으리. 그로부터 50년: 종전 50주년기념전쟁체험문집』(忘れまいあれから五〇年: 終戦50周年記念戦争体験文集)을 펴냈는데, 총 6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지역주민들의 전쟁 체험 증언을 집대성한 기록집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협은 전후 60주년인 2005년에도 비슷한 기획의 체험문집을 발간했다.

했던 평화그룹 회원 2명이 가이드로 참여했다. 평일에 답사가 있었던 만큼, 30~70대의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이 많이 참가했고, 미취학 아동을 데려온 주부들도 있었다. 답사 일정은 난사쓰 일대의 전적들, 즉 가와나베초(川辺町)의 특공기 은폐참호(掩体壕), 반세이(万世)의 특공기지 터 및 평화회관 견학, 아오토(青戸)의 특공기지 터(토치카, 격납고 등), 지란의 특공기지 터 등을 하루 일정으로 둘러보는 것이었다.

매달 한 차례 열리는 평화그룹 정례회에서는 회원들의 개별 활동 보고와 지난 달의 전적 답사 성과에 대한 평가와 반성, 이 달의 전적 답사 계획 수립, 그리고 이 달 회원들의 임무에 대한 역할분담 등을 논의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생협이 평화그룹 활동은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평화문제와 관련된 현안들을 이야기하고, 또 지역의 전쟁 경험을 기록하고 계승하는 풀뿌리 지역운동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성원 모두 전문적인 역사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 이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 역시 아마추어의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다. 또한 “왜 전적 조사를 하는가” 혹은 “전적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전쟁의 실상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혹은 “지난 전쟁의 흔적으로 현재 가고시마에 남아 있는 것”이라는 극히 소박한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료집의 표제가 1998년 오스미 반도, 2001년 난사쓰 지역 조사 자료집까지만 해도, 그 표제가 「제2차 세계대전과 가고시마 전적 조사」이던 것이, 2008년의 이즈미 지역 조사 자료집부터는 「아시아·태평양전쟁과 가고시마 전적 조사」로 바뀐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난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내부 학습을 통해 회원들 사이에서도 공유되고 있다.¹⁹ 다음 절에서는 2009년 11월에 있었던 ‘이즈미 전적답사 버스 투

19 자료집의 표제가 바뀐 것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은 평화그룹의 방향성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한 평화그룹 회장인 미와(三輪) 씨의 답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참고로 일본사회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대동아전쟁’이나 ‘십오년전쟁’, ‘2차 세계대전’이라는 용어가 갖는 한계를 성찰하는 가운데 나왔다. 2000년대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용어를 일본의 아카데미에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成田龍一 外, 『波講座: アジア太平洋戦争』(전10권, 2005)의 서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혹은 ‘태평양전쟁’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의 인식 변화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

만, 전후 폐허가 된 땅을 일군 개척민들과 예전 공습으로 인한 파괴와 희생을 기억하는 주민들이 데모대를 구성, 깃발을 들고 시청까지 행진하는 등 맹렬한 반대로 비행장의 재건을 무산시켰다. 특히 패전 이후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전전 오키나와에서 소개되어 규슈로 왔지만, 전후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돌아갈 수 없게 된 오키나와인(당시 이즈미 비행장이 있던 카노야(鹿屋) 지구만 해도 11명이 오키나와인들로, 전체 개척자의 1/3을 점했다고 한다)들로 이루어진 개척민들이 개척 과정에서 겪었던 고난은 구술 기록으로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경험이 전후 자위대의 비행장 재건에 맹렬히 저항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주민들의 이러한 반대에는 전전 비행장이 아닌 민가 지역에까지 자행되었던 처참한 공습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이즈미 지역의 경우 비행장이 민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1945년 3월부터 패전 직전인 8월까지 B29의 폭격 등 수차례의 공습을 받아, 마을 주민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집이나 가재가 불타는 등 재산피해도 심각했다. 이 공습 경험은 전후에도 이즈미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으며, 이는 많은 구술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²¹

현재까지도 이즈미 지역에는 기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과거 특공비행장의 격지였던 한 ‘특공비공원’(特攻碑公園)은 특공위령비인 ‘구름의 묘표’(雲の墓標)를 위시한 여러 위령비를 비롯하여 당시 항공기지를 지키던 보조들의 초소나 예전 전투지휘소가 있던 지하호 등이 밀집되어 있어 답사 시 가장 먼저 찾는 장소다.

매년 개최되는 이즈미 특공위령제가 거행되는 중심무대인 ‘구름의 묘표’는 1960년 건립되었다. 이즈미의 향토지에 따르면 위령비 건립에 가장

21 지역 문화지인 『이즈미 문화』(出水文化, 1966~현재)는 1988년에서 90년까지 3회에 걸쳐 지역의 전쟁 체험에 대한 특집인 「고향의 패전과 부흥」(ふるさとの敗戦と復興, 제69호), 「고향도 전쟁이었다」(ふるさとも戦場だった, 제71호), 「고향의 태평양전쟁」(ふるさとの太平洋戦争, 제73호)을 게재했는데, 여기에는 과거 공습에 대한 체험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전쟁의 막바지인 1945년 8월 1일 대공습에 의해 국영 알코올 공장이 폭파된 것은 당시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아 있다.



〈그림 2〉 이즈미 특공비공원에 세워진 '구름의 묘표'



〈그림 3〉 공원 내 방공호 입구. 종전의 칙서가 걸려 있다. (2009년 11월 필자 촬영)

‘구름의 묘표’ 옆에 세워진 위령비는 각각 ‘해군항공대 이즈미 기지 육상 공격대 은하대 출격지비’(海軍航空隊 出水基地 陸攻隊銀河隊出撃地碑, 1995)와 ‘진혼 순국영령비’(鎮魂殉國英靈碑, 1996)다. 첫 번째 비는 명칭 그대로 이 땅이 예전 특공대가 출격했던 기지였음을 기념하는 비로, ‘구름의 묘표’ 건립 시와는 달리 일반 시민의 모금만이 아닌 예전 부대의 관계자들의 지원으로 건립되었다. 하지만 비의 뒷면에 새긴 “1943년 이즈미 해군항공대 개설 이후 젊은 대원들을 성심껏 지원하면서, 공습하의 기지 수복에도 힘써준 이즈미 시민들에게도 많은 희생자가 생긴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전후 50년에 맞춰 전몰자 전원의 위령을 위해 여기에 비를 건립한다”(강조-인용자)라는 건립 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비는 특공전사자뿐만 아니라 민간인 전몰자들도 위령하는 비다. 그러한 점에서 가고시마 내 다른 지역의 특공위령비와는 다르다. 또한 두 번째 비는 “동일한 전장에서 싸운 사람들도 동시에 위령과 현창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름의 묘표’ 건립 이후 조사에 의해 판명된 특공 전사자뿐만 아니라, 항공대와 관련이 있던 전 전몰자 638명의 이름을 새긴 비다. 이는 ‘국가가 특공사로 인정한’ 전사자만을 위령·현창한다고 밝히고 있는 지란과는 달리, 이즈미 기지에서 함께 싸운 전우를 기린다는 지역적·전우회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22 이상의 이야기는 出水基地特攻碑保存会, 『特攻碑 雲の墓標』, 出水市, 1960 및 이즈미 특공비 현창회 회장 다케조에(竹添三朗) 씨와의 인터뷰를 참조해서 재구성했다.

이즈미의 ‘특공위령’은 이들 특공 전사자들과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는, 혹은 출신지(향토)도 아닌 ‘기지마을’이라는 인연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가 위령 행사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후의 일반적인 지역사회 위령제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위령의 본질은 그들의 희생이 초석이 되어 전후 일본의 평화를 가져왔다는, 즉 희생과 평화와 번영의 삼중주²³로 요약되는 전후 일본 평화주의의 한 지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난 전쟁에 대한 인식(혹은 역사인식)은 다양하며, 그것이 특공의 죽음이 ‘순국’인가, ‘개죽음’인가를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들은 희생에 대한 의미 부여(“특공대원은 현재 일본의 번영과 평화의 초석이다”)를 통해 봉합된다. 이는 야스쿠니를 중심으로 하는 ‘순국’, 히로시마·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하는 ‘평화’라는 이분구도가 자리 잡은 1960년대 이후 일본사회에서 평화주의가 걸었던 궤적이기도 하다. 이런 애매함은 물론 “상징성의 약화”²⁴를 초래할 수 있지만, 이 논리가 이후 일본사회에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넘어서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점을 동시에 지적해야 한다. 실제로 ‘희생=초석’론은 ‘순국론’과 ‘개죽음론’의 불협화음을 봉합하면서 일본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규칙, 혹은 ‘국민감정’(national sentiment)으로 자리매김되어왔다.²⁵

이즈미 특공비공원에 드리워진 것 역시 이런 애매한 평화주의다. 이 공

23 田中伸常, 『さよなら, 「国民」: 記憶する「死者」の物語』, 一葉社, 1998, 127쪽.

24 赤澤史朗, 『靖国神社: せめぎあう〈戦没者追悼〉のゆくえ』, 岩波書店, 2005, 160쪽.

25 기타무라 쓰요시(北村毅)는 전후 일본의 연설공간에서 ‘평화’가 전사자의 ‘피의 희생’과 세트로 사용되는 한 범(汎)이데올로기의 영역으로 존재해왔다고 말한다. 즉 전사자의 ‘희생’이 현재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다는 인과관계 속에서 전후가 표상되는 한, ‘평화’는 모든 사상 신조의 완충으로서, 변환자재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사회에서 희생=초석=평화론이 커다란 이론(異論) 없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이치노세 도시야(一ノ瀬俊也)는 지역사회와 전몰자 위령에 대한 연구에서, 전쟁의 의미에 대해 천착하면서도 자신의 육친의 죽음이 헛된 죽음[犬死]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그들 유족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국가를 위해’라는 초석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물론 이는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죽음의 의미를 묻는 다른 가능성들은 정말 부재했는가,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낸 ‘희생=초석’론 이외의 다른 대안의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데 왜 실패했는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설명은 단순한 ‘현상 긍정의 논리’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北村毅, 『死者たちの戦後誌: 沖縄戦跡をめぐる人びとの記憶』, 御茶の水書房, 2009, 223쪽; 一ノ瀬俊也, 「戦後地域社会における戦死者「追悼」の倫理」, 『戦争責任研究』 37号, 2002.

간은 특공대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는 공간인 동시에 ‘현창’의 공간이다. 또한 예전 항공기의 프로펠러나 방공호 입구에 버젓이 걸려 있는 ‘중전의 칙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은 결여되어 있는 공간이다. 실제로 이 공원을 관리하며, 매년 위령제를 거행하는 단체의 이름이 ‘특공비 현창회’이고, 위령제 역시 지극히 소부대 전우회적인 분위기에서 치러지고 있다. 더욱이 현창회 구성원들이 고통화에 접어들면서 위령제의 운영 자체를 자위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현창회 내부에서 제기되는 등(2009년 4월 16일 위령제 이후 정리 모임), 자위대의 개입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 가고시마 전적 여행하기: ‘이즈미 전적 답사 버스 투어’

평화그룹이 주도한 가고시마 전적 답사는 전후 오키나와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이후 히로시마·나가사키로 이어지는 전후 일본의 전적 답사 혹은 평화교육의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고시마가 새로이 전적지로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본토에서 지난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한 곳, 특히 특공기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싹트면서부터다. 물론 그 이전에도 지역의 평화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가고시마 특공기지를 답사해왔지만, 그 성격은 평화단체 구성원의 내부 교육적 성격이 강했다. 다시 말하면 전국 각지의 평화운동 단체들이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답사를 가고시마 지부에 의뢰하면 가고시마 지부에서 가이드를 파견하여 이에 대응하는 형식이었다.

2009년 가을에 실시된 가고시마 생협의 ‘이즈미 전적 답사 버스 투어’ 기획은 이렇듯 성원들의 내부 교육적 성격이 강한 기존 답사의 틀에서 벗어나면서도, 지란이 독점해온 통속적인 관광 프로그램에서 탈피해 이즈미, 아오토, 반세이, 이브스키 등 ‘관광’의 손이 닿지 않았기에 역설적으로 예전 전쟁의 흔적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 여러 지역을 발굴해냈다는 데 의의가 크

다고 할 수 있다. 생협으로서도 평화그룹의 조사 결과를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으로 기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투어 지역은 과거 연합군의 공습으로부터 항공기를 숨기기 위한 특공기 은폐참호나 기지터, 활주로 등이 그대로 방치된 채 남아 있는 곳이 많아, 향토사가나 지역의 역사교사들에 의해 지난 전쟁의 흔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교육의 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교통이 불편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가이드, 혹은 가이드북의 미비로 일반인들이 방문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곳들이었다. 그중에서도 이즈미 지역은 평화그룹으로서도 장기간(7년)에 걸쳐 조사한 지역이고, 가고시마의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은 전쟁의 흔적들이 마을 곳곳에 남아 있어서, 첫 번째 지역으로 선택된 것으로 보인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난사쓰(이브스키 / 지란 코스) 지역과 호쿠사쓰(이즈미 코스) 지역이 선정되었지만, 사업성 문제를 포함한 여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2009년에는 이즈미 지구만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0년 난사쓰 지역 투어를 기획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그리고 예정대로 난사쓰 지역 투어는 2010년 3월에 이루어졌다. '난사쓰 투어'는 이브스키의 해군 특공기지(수상기 특공)와 미완성으로 끝난 아오토의 마노히(まのひ) 특공기지의 전적들, 그리고 육군 특공기지의 대명사인 지란에 남아 있는 여러 전적을 하루 일정으로 둘러보는 기획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답사 코스는 3절에서 다룬 특공비공원에서부터,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적기(미군기)'를 격추하기 위해 설치된 지상의 고사포대 흔적이나, 예전 이즈미가 해군기지였음을 보여주는 군함기 계양대, 현재 근처 보육원이나 소학교 등에 남아 있는 방공호, 공습 등의 비상시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지하발전소 흔적, 비행장의 활주로, 그리고 특공기 은폐참호 등이다. 특히 연합군의 B29 공습에 의해 60kg 폭탄 직격을 받아 백여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냈다고 하는 한 특공기 은폐참호에는 아직도 천정 윗부분에 폭탄이 떨어진 흔적인 커다란 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다. 예전 이즈미를 방문했을 때 연구자에게 주위의 전적지들을 안내해주었던 다케조에 씨는 전쟁의 비



〈그림 4〉 이즈미에 남아 있는 특공기 은폐참호(2009년 11월 필자 촬영)

참함이나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직접 손으로 전적을 만져보는 것이라며, 전적으로서 은폐참호의 중요함을 이야기한 바 있다.²⁶ 하지만 현재 이 은폐참호는 논밭에 방치된 채, 농가의 쓰레기가 그대로 널려 있는 등(그림 4), 도저히 평화의 소중함을 떠올릴 수 있는 전적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듯 보인다.²⁷

지난 전쟁과 관련된 유적으로 또 하나 흥미로운 곳은 특공비공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특공신사’다. 이 신사는 원래 이즈미 해군기지 안에 설치되었던 신사로, 전후 항공대가 해체되면서 함께 철거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 택지조성 공사 도중 신사의 대좌가 발견되면서, 지역 유지들에 의해 1989년 ‘특공신사’로 재건립되었다고 한다. 전적 투어 일정에 신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재까지 이곳에 전전 천황의 초상화(소위, ‘고신에이’(御真影))를 전화(戰火)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소가 남아 있다는 점 때문이다.²⁸ 당시 답사에 참가한 70대 이상의 전쟁 체험 세대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흥미롭게 둘러보고, 또 ‘고신에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는 손자손녀들

26 2008년 12월 다케조에 씨 인터뷰.

27 2016년 8월 이곳을 다시 방문했을 때 은폐참호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지역 생협을 중심으로 이즈미 전적 답사가 계속되면서, 전적 보존에 대한 요구가 지역사회 내에서도 제기된 것처럼 보인다.

28 ‘고신에이’는 전전 일본에서는 가장 신성한 상징의 하나로서 전 국민적인 참배의 대상이었다. 당시 유수의 학교들에만 배분된 고신에이는 그 학교의 자랑으로, 학교 화재 시 고신에이가 불타, 해당 학교의 교장이 자살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교육칙어’와 함께 ‘봉안’된 고신에이는 기원절(紀元節)이나 천장절(天長節)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에는 강당에 걸어 교사와 학생이 일제히 참배하기도 했다.

에게 그 뜻을 설명해주기도 했다.

답사 당시 가이드의 설명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이 신사가 전후 일본에서 갖는 의미는 이 신사에 ‘모셔져 있다고’ 하는 제신들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원래 전전 해군기지 시절, 이 신사의 제신은 가시마 신궁(鹿島神宮)의 한 신이었다. 전후, 국가신도의 폐지를 강제한 ‘신도지령’(神道指令) 등의 조치나 마을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폐허가 된 이 신사는 1989년 특공신사로 재출발하면서 새로운 제신들이 추가되었다. 그 제신들은 해군 특공대원 1호로 레이테 전투(Battle of Leyte)에서 전사하면서 군신으로 추앙받았던 세키 유키오(関行男) 중위를 비롯해서 3천 명에 달하는 해군 특공대원들이다. 레이테 전투는 1944년 10월부터 종전까지 필리핀의 레이테섬에서 미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개된 전투로, 일본해군의 항공 특공작전이 처음으로 전개된 전투이기도 하다. 이 전투의 패배로 궤멸적 피해를 입은 일본 해군은 사실상 전투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이후 미군의 오키나와 공격으로 이어지게 된다. 전사자들을 군신으로 추앙하며 제신으로 삼는 전통은 전전에는 흔했지만, 전후 45년이 지난 일본사회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그러나 이 신사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기억의 장으로 자리매김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 한 예로 실제 특공 위령제가 열리는 4월 16일, 이곳은 순례의 공간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참배객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또한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정기적인 제사’(例大祭)가 열리지만, 그 규모는 4월의 특공위령제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2009년의 투어에는 평화그룹 회원 가이드(2명)와 사무국(2명)을 포함해서 총 37명(연구자 포함)이 참가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평일에 이루어진 난사쓰 답사에 비하면 참가자들의 연령이나 성별도 유아에서 70대까지 다양했다. 가고시마 시내에서 이즈미까지는 버스로 2시간이 넘는 꽤 긴 여정이다. 가이드들은 이 시간을 지난 아시아·태평양전쟁의 마지막 귀결로서의 특공작전의 의미, 그리고 이즈미 특공기지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다큐멘터리[NHKスペシャル, 〈학도병 허용되지 않은 귀환: 육군특공대의 비극〉(学徒兵 許されざる帰還: 陸軍特攻隊の悲劇), 2008]²⁹ 상영 등으로 구성했다. 이는 2009년 8월 난사

쓰 답사 이후 이루어진 자체 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난 전쟁의 전개 과정 속에서 특공작전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적 답사가 피상적인 감상에 그칠” 우려에 대한 나름의 배려로 보인다. 가이드는 근대 일본의 역사를 전쟁으로 접철된 역사로, 특히 1931년부터 전개된 소위 ‘15년 전쟁’을 전체적인 의미에서 ‘침략전쟁’으로 규정했다. 특히 특공작전에 대해서는 연합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공지에 몰린 군부가 순진한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상업적인 지란 관광 상품의 주된 내러티브인, “위기에 처한 조국을 방위하기 위해 순수한 젊은이들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남쪽 바다를 향해 날아갔다”는 감상주의적 시각과는 분명히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란의 특공평화회관과 관광지로 개발된 그 주변 전적들에 의해 독점되어오던 가고시마의 전적 답사가, 생협 등 시민단체들의 기획에 의해 발굴되고 또 확대되는 일련의 움직임은 지난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심화하고 성찰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볼 때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가고시마의 전적들은 직접 지상전이 벌어지고 전투에 연루된 무수한 사람들이 죽은 전장(戰場)이 아니라, 본토 방어를 위한 기지들의 흔적이라는 점에서, 전쟁의 비참함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 포탄의 흔적이나 폐허가 된 특공기 은폐참호 등 지난 전쟁을 상기시키는 얼마 안 되는 상흔들도 대개 연합군의 공습과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피해자로서의 전쟁의 기억만을 재생산할 위험도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평범한 일반 국민인 자신들마저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전쟁은 싫다”(戦争はいやだ)라는 실감에서

29 참고로 이 다큐멘터리는 투어 사전 모임 때 연구자가 평화그룹에 추천한 필름이기도 했다.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당시 출격했던 육군 특공대원의 절반 이상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자의 반, 타의 반(기체 고장 등)으로 기지로 귀환했고, 이들은 당시 육군의 비밀 속사인 신부료(振武療)에 감금되어 인간적인 멸시와 비난을 받으며 재출격을 강요당했다는 줄거리다. 물론 이들의 존재는 특공에 관한 공식담론에서는 철저히 은폐되어왔다. 왜냐하면 이들은 특공출격, 그리고 전사라는 비극적이면서 동시에 낭만적인 내러티브에 균열을 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신부료의 소재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도 이 다큐멘터리가 제작된 이후로 비교적 최근이다.

나오는 소극적인 평화주의의 교육 자료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평화그룹이 지향하는 ‘아마추어리즘’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한계이기도 하다. 아마추어리즘이 자신들의 지역사를 직접 조사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열의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열의가 전후 일본 정치의 보수화를 저지하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마추어리즘은 아카데미와 같은 전문성, 혹은 전위운동조직과 같이 명확한 운동 목표를 가질 수도 없으며, 또 일반인의 참여에 기반한다는 그 전제상 여론에 좌우되기 쉬운 한계가 있다.

지난 전쟁 당시 그러한 상황에 저항하지 못하고 심지어 협력하기도 했던 자신들을 포함한 일반 시민에 대한 반성은 평화그룹 내부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있었다. ‘이즈미 버스 투어’ 프로그램 역시 야스쿠니신사나 지란의 특공평화회관이 현재 일본 전역으로 발신하고 있는 ‘특공=순국’이라는 인식을 우려한 데서 기획된 것이다. 버스에서 답사 참가자들에게 기획 의도를 설명하면서 아시아·태평양전쟁과 특공작전의 성격을 거듭 강조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답사를 마친 후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지란 말고도 우리 고향 여기저기에 특공기지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 “평화그룹의 안내와 사전 설명,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집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많은 전적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등 기획에 대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렸다.³⁰

하지만, 평화그룹 회원들조차도 스스로 토로하듯 10여 년에 걸친 전적 조사의 의미는 “전쟁의 기억이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된 절반은 자기 자신을 위한 조사활동”이었다. 지난 전쟁에 대한 그들의 기억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노스텔지어적 기억과, 군에 대한 강한 혐오감이다. 즉 평화그룹의 기획은 처음부터 전후 일본 사회에서 지난 전쟁을 이야기하는 주류 담론인 “전쟁은 싫다”, 혹은 “군부가

30 이상의 내용은 가고시마 생협이 자체 실시한 「2009년 이즈미 버스투어 참가 후기 설문조사」를 참조했다.

나뻐다”는 식의 피해자주의에 입각한 감상주의에 포섭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³¹ 물론 이를 전쟁을 체험한 민중의 소박한 평화사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분노가 한결같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상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적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전적은 결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스텔지어의 대상이자,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회고하는 장으로서의 전적에 대한 인식을 넘어,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은 장소”이자 “전사자를 둘러싼 산 자의 실천의 전개, 즉 산 자와 전사자의 관계성을 기록한 장소”이며, 동시에 “죽은 사람들을 추도하고, 애도하며, 슬퍼하고, 현창하며, 기억하고 망각해온 산 자의 행위가 공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으로서 전적을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된다.³² 그리고 답사 참가자들이 이러한 인식에 이를 수 있도록, 평화 가이드는 그 전적이 과거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라는 사전적 해설을 넘어서, 전적이 내포하고 있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성, 나아가 전후 이러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이 의미하는 것(즉, 무엇이 전적으로 분류되며, 또 어떤 것들은 버려지는가, 이러한 전적의 분류기준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어떠한 힘이 작동하는가)까지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평화 가이드는 일반적인 관광 가이드와는 달리, 지식이나 사상의 확고한 전달자, 즉 ‘엔터테이너’라기보다는 ‘교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맥캐널(D. MacCannell)은 고프만(E. Goffman)의 이론 틀을 빌려 관광의 핵심은 전경 혹은 앞면, 즉 무대에 가려진 뒷면에 주목해서, 자신들이 보

31 전쟁 체험에 대한 이런 방식의 서사구조는 특히 신문 등과 같은 공적 미디어를 통해 표출될 경우 더욱 현저하게 드러난다. 그 한 예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00회가 넘도록 연재되고 있는 가고시마의 지방신문인 『南日本新聞』의 특집 「증언: 전승해야 할 전쟁」(証言: 語り継ぐ戦争)에 실리는 일련의 전쟁 체험 기사는 비참했던 지난 전쟁의 경험에 대한 회고와 더는 이런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친편일률적인’ 2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32 이상 北村毅, 『死者たちの戦後誌: 沖縄戦跡をめぐる人びとの記憶』, 御茶の水書房, 2009, 24쪽.

고 있는 대상의 진정성(authenticity)을 경험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³³ 물론 이러한 전제에는 관광의 대상이 대개 관광을 위해 꾸며진 것, 따라서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즉 가이드의 임무는 관광객들이 그 이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하지만 전경=관광을 위해 꾸며진 것, 후경=진정한 모습이라는 등식이 반드시 어디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날것’ 그대로의 모습은 관련 지식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안내판 하나 없이 논밭 한가운데 웅하니 서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농가의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된 특공기 은폐참호를 보면서 과연 일반인들이 전쟁의 참상을 감지해낼 수 있을까. 이즈미의 가이드들에게는 폐허 속에서 “의미심장한 파편” 그리고 자신의 작품구조의 객관적 결정인자를 발견한 바로크 극작가들의 눈이 요구되는 것이다.³⁴

물론 일반인들로 구성된 평화그룹에 이 정도의 인식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실제로 ‘전문가들’—인문사회과학자들—이 직업인이자 동시에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인 것이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전문가들이 방기해버린 이 공백을 풀뿌리 시민단체의 여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수행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전쟁 체험과 그 흔적으로서의 전적이라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소중한 가치가 있는 ‘원석’을 발굴해냈다는 것에 평화그룹 활동의 의의를 평가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10여 년에 걸친 전적 조사를 통해 특공 비행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전적들이 비단 자신들만이 아닌 전쟁 말기 강제 동원되어 끌려온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역사에서는 지금껏 은폐해왔던 사실들을 새로이 발굴하면서,³⁵ 지역과 동아시아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찾아냈다는 점 역시 평화그룹 활동의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필요가 있다.

33 Dean MacCannell,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 1977, p.597.

34 발터 벤야민, 최성만·김유동 옮김, 『독일비에극의 원천』, 한길사, 2009.

35 이영진, 「전시기 가고시마(鹿兒島)의 조선인 강제연행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 『日本研究論叢』 35, 2012.

하지만 구성원들의 고령화로 평화그룹이 2016년 3월 공식적으로 해산 하면서,³⁶ 그들의 활동을 어떻게 계승해야 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다. 현재는 이즈미, 난사쓰, 오스미 등 각 지역에서 생협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적 가이드들이 평화그룹의 뒤를 이어 독자적으로 답사 가이드 활동을 하고 있지만, 20여 년간의 활동을 통해 평화그룹이 축적해온 유산들이 이들에게 제대로 계승되고 있지 못하다는 위기감도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협 내부에서도 각 지역의 전적 가이드들의 모임을 별도로 구성하고, 이전 평화그룹 회원들과의 교류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가고시마 생협의 평화운동 자체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6. 나가며

2016년 가을 가고시마는 때 아닌 메이지유신 150주년 준비로 분주해 보였다. 아직 2년이나 남았지만 ‘유신 3걸’의 1인이자 이 지역 출신인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가 메이지유신 150주년 기념 NHK 대하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결정되면서 동시에 가고시마가 로케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신의 주역이었음에도 중앙정부와의 권력 다툼에서 패하고 낙향한 후, 가고시마의 사족 반란이자 유신 이후 최대의 내전인 세이난(西南)전쟁에서 사족들을 이끌고 유신군과 맞서 싸우다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개인사도 겹쳐진 탓인지, 가고시마에서 사이고는 친근한 영웅이자 동시에 신처럼 숭배된다. 도쿄 우에노(上野) 공원에서 서 있는 유카타 차림의 서민적인 모습의 동상과 달리 시

36 2016년 3월 해산을 통해 활동을 중지하면서 평화그룹은 ‘복지그룹’으로 명칭을 변경, 고령화와 지역 사회, 가정의 복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활동을 재개한 상태다. 이는 70, 80대가 넘어선 구성원 자신들의 일상의 현실로부터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평화그룹 자체의 원래 의도와도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들은 지역사회 곳곳에서의 새로운 전적 가이드들의 출현을 자신들의 운동에 대한 일종의 확산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자신들의 전적 조사와 이후 평화활동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다.

내 한가운데에 서 있는 육군 제복 차림의 거대한 사이고 동상은 지역사회에서 그의 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 사람들의 관심은 비단 사이고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다. 가고시마 시 곳곳에는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고마쓰 다테와키(小松帶刀), 그리고 ‘일본 경찰의 아버지’라 불리는 가와지 도시요시(川路利良) 등 메이지 유신 주역들의 동상이 즐비하고, 또 중심가인 덴몬칸(天文館) 역시 메이지 유신의 사적 및 기념물이 빼곡하게 들어 차 있다. 그들에게 가고시마는 여전히 메이지유신의 본향인 것이다. 나아가 이곳은 ‘특공의 성지’이자, ‘자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보수 본류의 고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전쟁을 기억하고 평화의 유산을 계승하고자 하는 소수의 움직임으로서 가고시마 생협의 평화활동과 전적 답사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적답사가 남아 있는 폐허들과 거기에 얽힌 개인적인 — 때로는 낭만적이고 때로는 비극적인 — 에피소드에 매몰될 경우, 연합군의 계속되는 공습에서 위기에 처한 ‘조국을 지키기 위해’ 특공대에 자원해서 사라져간 일본 젊은이들의 순수한 희생을 떠올리고 감동하는, 즉 특공대에 대한 전형적인 담론들을 현장 학습하는 장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성은 이미 본문에서 여러 차례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가고시마에서 이루어지는 답사를 둘러싼 여러 실천들 역시 전쟁에 대한 실감과 감상주의 사이의 애매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겨진 폐허를 통해 지난 과거가 얼마나 끔찍했는가라는 과거형의 회고가 아닌, “우리는 여전히 그 시대의 한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스스로에게 환기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벤야민(W. Benjamin)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과거를 역사적으로 이해함에 있어 “단순히 그것이 ‘원래 어떠했는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닌, 그 위협의 순간에 섬광처럼 스치는 어떤 기억을 붙잡고자” 시도해야 한다고 쓴 바 있다. “역사적 유물론의 중요한 과제는 위협의 순간에 역사적 주체에게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과거의 이미지를 붙드는 일이다.”³⁷ 이 비의적인 문장에는 적들이 승리할 경우 죽은 자들도 그 적 앞에서 안전하지 못할 터인데,

하물며 적들이 승리를 거둬고 있는 ‘비상사태’에서 개입의 지점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는 역사적 유물론자로서 벤야민의 ‘다급함’이 깃들어 있다.

깨끗하게 정비된 지란의 특공평화공원이나 기념관과 같은 공간은 그러한 폐허를 가리기 위해 만들어진 환등상(phantasmagoria)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펼쳐진 논밭의 평화로운 정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 거무튀튀한 이즈미의 저 특공기 은폐참호를, 그리고 지금은 도로의 일부로 그 흔적만이 남아 있는 아오토의 특공기지 활주로를 답사하는 지역사회의 움직임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전적 자체는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매스미디어가 연출해내는 특공대원들의 숭고한 조국애와 같은 미화된 스펙터클 뒤에 가려진, 10~20대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과 작별할 것을 ‘강요받았던’ 그들이 출격 직전 생의 마지막에 밟았던 땅에 떨어뜨렸을 눈물의 의미, 그리고 자신의 목숨과 바꾸고자 했던 새로운 삶의 희구를 읽어내는 눈이다. 나아가,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그 장소를 표시하는 팻말조차 없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집단숙사 터에서, 전쟁 말기 이곳 가고시마에 끌려와 한 번 이륙하면 절대로 돌아오지 못할 특공 비행기들을 띄워 보낼 비행장을 만들기 위해 바위를 나르고 땅을 고르며 활주로를 만드는 가혹한 작업에 시달리다 스러져간 ‘이름 없는’ 조선인들의 무념(無念)의 한(恨)을 떠올려야 한다. 이는 전적이 비단 일본만의 것이 아닌 동아시아에 속한 것이라는 존재 구속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37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발터 벤야민 선집 5: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의 의』, 도서출판 길, 2008, 334쪽.